

“전남대 앞 나무가 한국 메타세쿼이아 조상”

〈치과병원 정문〉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2일 전남대가 '광주·전남 메타세쿼이아 종주목'이라고 밝힌 나무를 양팔로 감싸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1952년 양묘업자 기증 받아 교수들이 심어”

60년대 전남대 수목원·70년대 담양 등 광주·전남 보급

메타세쿼이아는 한때 식물학계에서 화석으로만 존재하는 멸종식물로 알려졌다. 1940년대 중반 중국 양쯔강 한 지류에서 살아있는 노목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가 됐고, 이때부터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남대가 “전남대치과병원 앞 나무가 우리나라 최초의 메타세쿼이아다”라는 주장을 펴 논쟁을 끌고 있다.

전남대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최초 메타세쿼이아’가 광주에서 자라고 있고, 담양 메타세쿼이아도 이 나무의 후손이 된다.

2일 전남대에 따르면 1952년 광주에서 양묘장을 운영하던 정하도씨가 일본에서 묘목 10여 그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해 이 중 1그루를 학교에 학술연구용으로 기증했고, 그 나무가 현재도 전남대치과병원 앞에 자라고 있다.

당시 정씨로부터 나무를 받아 심은 교수

는 이정석 전 전남대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이 메타세쿼이아 옆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전남대 농업실습교육원 김종영 팀장은 “이 나무를 모수(母樹)로 번식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1960년대 당시 학술림 양묘장(수목원)에 식재했다”며 “1970년 초·중반 국가에서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장려할 당시 담양 등에 심어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도 이 숲의 나무를 재증식해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들여온 전남대치과병원 앞 나무가 1세대라면, 전남대 수목원에 심어진 메타세쿼이아가 2세대, 담양 등 광주·전남 지역에 분포된 가로수가 3세대 나무라는 의미다.

전남대치과병원 앞 메타세쿼이아는 높이 32m, 흉고(1.2m 높이에서 잦 나무 지름) 86cm에 이르고, 담양 가로수길 메타세쿼이아는 높이 26~28m, 흉고 68cm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메타세쿼

이아 삽목(挿木)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학계에 발표한 오광인 전 전남대 교수는 “70년대 중반 정하도 사장을 설득해 삽목 방법을 연구했고, 이를 학계에 발표한 이후 국내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원식물개발연구원장을 지낸 최영진씨가 펴낸 ‘관상수 재배기술’(1991년)에는 “우리나라에 메타세쿼이아를 수입하는데 공헌한 삼남복지공사 정하도 사장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 나무가 수입된 것은 1961년의 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영진씨가 1971년 6월 펴낸 ‘관상수 원예’라는 책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가 주장하는 1952년과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이 차이 나지만 ‘정하도씨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왔다’는 주장만큼은 일치한다. 이 때문에 전남대 ‘메타세쿼이아’가 광주·전남지역에 분포된 메타세쿼이아 종주목이라는 주장만큼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학회의 초대회장을 맡는 등 산림녹화에 헌신한 현신규 박사에 의해 1952년 국내에 최초로 들어온 게 정설”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5 해질 17:37
달출 28:58 달몰 12:57

건강 관리 유의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6/19	보성	맑음	2/18
목포	맑음	7/18	순천	맑음	6/20
여수	맑음	8/18	영광	맑음	5/18
나주	맑음	3/20	진도	맑음	4/20
완도	맑음	8/19	전주	맑음	6/18
구례	맑음	2/20	군산	맑음	6/18
강진	맑음	3/20	남원	맑음	2/18
해남	맑음	3/20	축산도	맑음	11/17
장성	맑음	3/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서~북	0.5	북동~동	0.5
남해	남부	북서~북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서~북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남서~북	0.5~1.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44	11:52	00:00	07:28
여수	01:21		07:28	
	14:16		20:44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7/20	10/20	12/19	13/18	13/18	13/18	12/18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보통
- 운동
- 낮음

여수 사립외고 설립 갈등 확산

시 “산단업체 年 40억 지원”...시민단체 “지역발전 도움안돼”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이 여수 사립외고 어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0년간 매년 40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사립외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여수시와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수시는 이날 시청에서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소속 24개 기업이 참여한 지역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여수 사립(외)고 설립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은 사립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매년 40억원씩 10년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10년 이후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산단과 시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립고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운영비를 확보함에 따라 명문 사립고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산단 기업들의 지원 약속으로 명문 사립고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교육청, 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학부모, 산단 기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명문 사립고 설립을 위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립고 설립 후보자인 여도초·중학교 학부모들이 사립고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교육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립외고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장은 사립외고 설립이 지역교육의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도초·중학교 학생을 비롯해 총동창회, 학부모 등은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립외고 설립을 위해 여도중학교를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는 “사립외고를 설립하더라도 명문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우려는 많다”면서 “모집단위를 여수지역으로 제한하면 명문으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면 여수지역 학생들의 입학이 어렵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업체 변경 철회하라” 광주장애인연맹회 회원들이 2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변경에 반발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편,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여도학원 2개 학교 중 여도초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여도중을 폐교하거나 공립화해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자리에 사립외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풍암호수 비닐하우스 터 생태습지로

내년초 완공...체험공간 활용

11년째 불법경작지로 방치된 광주 풍암호수 비닐하우스 터가 생태습지로 거듭난다.

광주시 서구는 2일 풍암동 풍암호수 공원 내 무단점용 공간을 생태습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암호수 생태습지 조성은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며 국비 4억원이 투입됐다. 서구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인 생태습지에는 양서류 서식처, 수질정화 습지도 함께 들어

서게 되며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구는 생태습지와 양서류 서식처 조성으로 생태통로가 살아나고 풍암호수 내 생물다양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풍암호수 주변 비닐하우스와 수목 제거를 최근 끝마쳤고 이날 착공에 들어가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풍암호수에 생태습지가 들어서면 주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변호사회-日 아이치현변호사회 교류 세미나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일본 아이치현변호사회(회장 카와카미 아키히코)를 초청,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공동 세미나 등 친선 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에서 유종민 변호사와 아사다 사다유키 변호사가 양국의 로스쿨 제도와 법조인 양성체계 등에 대해 발제한 뒤 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도론과 대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법조문화

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치현변호사회 방문단장인 쇼우지 도시야 부회장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 일 양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등 앞으로 양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발전에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이치현변호사회 방문단은 전남대학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지방검찰청,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방문하는 교류행사를 갖고 4일 출국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수상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